

## 진 마이어슨 개인전 '노 디렉션 홈'

Jin Meyerson Solo Exhibition 'No Direction Home'



스테이지다이브 *Stagedive*, 2015, 캔버스에 오일, 290 x 420 cm

### 전시개요

전 시 명 : 노 디렉션 홈

전시기간 : 2016년 4월 13일(수) - 5월 15일(일)

전시장소 : 학교재갤러리 본관

출 품 작 : 총 11 점

### 보도자료

[www.webhard.co.kr](http://www.webhard.co.kr) (Id: hakgojaeart, PW: guest)

보도자료 폴더 내 , 20160413-20160515 진마이어슨 展

## 1. 전시개요

학교재갤러리에서는 오는 4월 13일 진 마이어슨(b.1972, 인천) 개인전 '노 디렉션 홈'을 개최한다. 2013년 이후 3년 만에 학교재에서 여는 전시다. 크기가 4m에 이르는 대작 <스테이지 다이브 *Stagedive*> 등 신작 11점을 선보인다.

전시 제목 '노 디렉션 홈'은 팝계의 살아있는 신화로 남은 밥 딜런이 2005년 발표한 곡<sup>1</sup> 가사다. 작가는 우연히 이 가사를 들으며 자신의 삶과 작품을 봤다고 한다. 그는 인천에서 태어나 네 살 때 미국으로 입양되었다. 사람들이 '너는 어디서 왔니?'라고 물을 때 방향을 잃고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작품 역시 엉켜있거나 휘몰아치는 형상을 하고 있다. 관객들은 작품 앞에서 시작과 끝이 어딘지 방향을 잃고 한참 응시하게 된다.

진 마이어슨은 잡지, TV, 사진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군중, 자연, 건물 등의 이미지를 포토샵으로 왜곡하고 해체해 새로운 이미지를 끌어낸다. 이를 캔버스에 붓으로 옮기는 그의 작업은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동시에 섬세하고 압도적인 힘을 지니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찌그러지거나 뒤틀리고 또 통째로 이어진 듯한 유기적인 도시 풍경을 선보인다. 어디를 그렸냐는 질문에 작가는 내면의 장소를 그린 것이라고 말한다.

1997년 펜실베이니아 아카데미 오브 더 파인아트에서 석사과정을 끝낸 그는 뉴욕 브루클린에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2006년 런던의 유명 갤러리인 사치에서 단체전 '회화의 승리'에 참가하면서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현재 그의 작품은 사치갤러리뿐만 아니라 세계 10대 컬렉터로 인정받는 인도네시아 기업 부디텍과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 필라델피아미술관, 첼시미술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sup>1</sup> 구르는 돌맹이처럼 Like a Rolling Stones

## 2. 전시주제

### 세계적 미술관들 매료시킨 진 마이어슨의 한국 개인전

진 마이어슨은 뉴욕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던 중 2004년 뉴욕의 잭 포이어 갤러리와 파리의 엠마누엘 빠로땡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개최하고 주목받았다. 그러던 중, 2006년 런던 사치갤러리에서 있었던 그룹전 '회화의 승리'를 통해 세계적인 컬렉터인 찰스 사치에게 작품이 소장되며 자리 자리 잡았다. 이후 뉴욕의 솔로몬 구겐하임 미술관과 첼시미술관, 필라델피아 미국미술관 등 주요 미술 기관 역시 그의 작품을 소장했다.

위에 언급한 미술 기관들은 마이어슨 작품에서 뛰어난 묘사 테크닉과 함께 주목해야 할 점을 공통으로 꼽고 있다. 실험적인 방법을 통해 자신만의 회화 제작 방식을 창조한 것, 우리가 사는 현실에 대한 작가 자신의 담론을 회화 위에 펼치는 것, 그러면서 동시에 관객에게 해석의 여지를 열어 놓아 회화를 직접 체험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들이 작품을 소장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마이어슨은 2010년 국립현대미술관 창동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로 선정되며 한국에 첫발을 내디뎠다. 이후 홍콩으로 작업실을 옮겨 아시아를 주요 활동 거점으로 삼고 있다. 이번 전시는 세계적 미술관들을 매료시킨 진 마이어슨의 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 이주의 순환 루트와 해석의 자유를 담은 '노 디렉션 홈'

전시명 '노 디렉션 홈'은 밥 딜런이 2005년에 발표한 노래 '구르는 돌맹이처럼'의 가사에 등장한다. '돌아갈 집도 없고, 알아주는 이 하나 없는, 굴러다니는 돌맹이처럼 With no direction home, a complete unknown, like a rolling stone'이라는 구절이다.

진 마이어슨은 한국에서 태어나 네 살 때 미국으로 입양, 말도 통하지 않고 동양인이라고는 동네를 통틀어 자신뿐이었던 유년 시절을 보냈다. 이후 지난 20년 동안 그는 작가 생활을 하며 뉴욕, 파리, 자카르타, 홍콩, 서울 등 컴퍼스 돌듯이 쉼새 없이 반복되는 이주의 순환 루트를 겪어 왔다. 그의 '집'이 지도에 표시될 수 없는 이유다.

마이어슨은 자신의 작품을 감상하는 관객들도 같은 경험을 할 것이라고 말한다. 마이어슨의 작품은 포물선 모양을 띤 셀 수 없는 곡선과 다양한 색으로 구성되어있다. 이것들이 자아내는 '복잡함'은 관람자가 작품의 시작점을 찾아 헤매게 만든다. 이 과정을 통해 관람자는 작품 속에 빠져들게 되고 자신만의 해석을 창조해내게 된다.

'구르는 돌맹이처럼'의 마지막 구절은 '당신이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으면, 당신은 잃을게 아무것도 없어요. 당신은 이제 안 보여요, 당신은 숨길게 아무것도 없어요 When you got nothing, you got nothing to lose. You're invisible now, you got no secrets to conceal.'다. 마이어슨은 자신의 작품은 교훈을 주거나 관람자를 가르치기보다는 그저 본인에게 보이는 현대 사회의 모습을 반영한 것일 뿐이라며 일방적인 메시지 전달을 경계한다. 이러한 마이어슨의 작품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해석의 자유를 갖게 된다.

## 한옥 공간에 어우러지는 현대 회화의 장면

진 마이어슨은 초반에 영감을 주는 몇몇 핵심회화에서 시작, 전시를 구상한다. 이번 전시 구상의 핵심이 된 회화는 <널 먹기 위해 입을 벌린다 I open my mouth to eat you>(2015)와 <스테이지다이브>(2015)다. <널 먹기 위해 입을 벌린다>는 전시장의 시작, <스테이지다이브>는 전시장의 끝에 설치되어있다.

건축적으로 학교재갤러리 공간은 독특하다. 갤러리 안쪽의 40%는 모던한 건물이며 앞쪽의 60%는 한옥이다. <널 먹기 위해 입을 벌린다>와 <스테이지다이브> 사이의 한옥 공간에는 나무색과 어울리는 캔버스 색을 그대로 드러내는 신작들이 선보여진다.

### 3. 작품세계

진 마이어슨은 대학 시절 잡지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트 Sports Illustrated에서 미식축구 경기 사진을 보다 그 사진이 담고 있는 '움직임' 또는 '속도감'에 주목하게 된다. 이후 그는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움직임' 또는 '속도감'을 통해 표현하는데 주력해왔다.

마이어슨은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에 관심이 있으며 작품을 통해 그에 대한 자신의 담론을 펼친다. 하여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접할 수 있는 잡지, 텔레비전,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해 작품의 소재를 찾는다. 선택하는 소재는 앞서 언급한 미식축구 등 스포츠에서 도시의 전경까지 광범위하지만, 산업사회 이후 인간의 정신적인 활동과 관련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마이어슨이 '움직임' 또는 '속도감'을 표현하기 위해 찾은 작업 방식은 소프트웨어 테크놀로지를 사용하는 것이었다. 그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포토샵을 집중적으로 이용하여 작업했다. 사진과 스케치에 포토샵의 소용돌이와 물결 효과를 적용시켜 변형시킨 이미지를 캔버스에 회화로 옮기는 방식이었다. 2005년부터는 스캐너를 이용하여 작업하는 새로운 시도를 펼치고 있다. 스케치를 스캐너 위에서 회전시키며 스캐너를 작동시켜 얻은 이미지를 캔버스에 회화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것은 작품 제작 과정이 단순한 디지털 작업과는 다른 수행적 행위가 되도록 하는 작가의 노력이다.

소프트웨어 테크놀로지를 이용하는 마이어슨은 '현대 장르로서의 회화'를 제시하는 작가다. 사진 기술의 도래와 함께 회화는 사라지거나 잊힐 위기에 놓였던 적도 있다. 하지만 회화는 그 고유의 감축성과 유일성, 그 안에 내재하는 모호성과 신화 같은 것들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마이어슨은 그 명맥을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해 새 창을 제시한다.



스테이지다이브 Stage Dive, 2015, 캔버스에 오일, 290 x 420 cm

1964년 네덜란드 Scheveningen의 Kurhaus에서 열린 롤링스톤즈의 콘서트에서 최초의 "Stage dive"가 탄생했다. 젊음은 실 새 없이 들썩였다. 환각을 유발하는 락앤롤의 발명과, 악명 높은 60년대의 사고방식과 문화에 의한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사회적 분위기가 함께 달아올랐다.

1964년 8월 8일의 밤, 공연장의 관객들은 광란적인 흥분 상태에 빠져있었다. 그들은 무대 위에 의자나 마이크, 여자 속옷을 과격하게 내던지다 결국 나중에는 자신들 스스로 무대로 뛰어 들었다고 한다. 무대에 뛰어든 이들은 누군가에 의해 난폭하게 내던져지거나 또는 자신들 스스로 군중 속에 다이빙 해 되돌아 왔다. Keith Richard는 상들리에 위에 소녀들의 속옷이 매달려 있던 당시의 상황에 대해 회상했다.

작가노트 2016 발췌

#### 4. 작가소개

진 마이어슨은 1972년 인천에서 태어나 네 살 때 미국으로 입양됐다. 동양인이 흔하지 않은 미네소타에서 성장, 어린 시절 홀로 시간을 보내기 위해 그림을 그리며 화가가 되기로 마음먹었다. 외삼촌 제임스 로젠퀴스트<sup>2</sup>의 작업실에서 작품과 작업 과정을 보고 겪으며 꿈을 키울 수 있었다. 덧붙여, 역사학자이자 교수였던 부친과 함께 미국 내 여러 도시의 미술관과 박물관을 자주 찾은 일은 큰 도움이 되었다. 1995년 미니애폴리스 예술대학에 진학해서 학사를, 1997년 펜실베이니아 예술대학에서 석사를 이수했다.

마이어슨은 2006년 런던의 유명 갤러리인 사치에서 단체전 '회화의 승리'에 참가하면서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이 전시를 통해 세계적인 화상 찰스 사치가 그의 작품을 사들였으며, 런던과 파리를 무대로 활동해 유럽에 두터운 컬렉터 층을 확보하고 있다. 솔로몬 구겐하임과 첼시 미술관 등이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마이어슨은 <회화의 승리>(사치 갤러리, 런던)를 비롯해 <집의 무질서>(반하런스 아트 컬렉션, 브뤼셀), <부산 비엔날레>(타카시 아즈마야 기획), <고함치다>(소더비 S|2, 뉴욕, 블라드미르 레스토양 로이펠드 기획) 등 주요 전시에서 작품을 선보였다. 가장 최근에 참여한 전시로는 <위험과 기묘함으로 가득찬: 보편주의로서의 회화>(M 우즈, 베이징, 로빈 페컴 기획)이 있다.

#### 진 마이어슨 (인천, 1972)

<sup>2</sup> 제임스 로젠퀴스트 James Rosenquist (b. 1933-, 미국)는 앤디 워홀, 로이 리켄스타인과 함께 미국 팝 아트 운동 발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작가로 꼽힌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초상, 케이크 한 조각, 그리고 시보레 자동차 바퀴를 묘사한 <대통령 선거>(1960~1961/1964)가 대표작이다.

- 1995 미니애폴리스 컬리지 오브 아트 앤 디자인 학사 졸업, 미네소타, 미국  
1997 펜실베이니아 아카데미 오브 더 파인아트 석사 졸업, 필라델피아, 미국

현재 홍콩/서울에서 거주 및 작업

## 개인전

- 2016 노 디렉션 홈, 학교재갤러리, 서울  
2014 끝없는 경계, 학교재갤러리, 상하이  
2013 인지의 축적, SCAD 무트 갤러리, 홍콩  
시각성의 부활, 이영미술관, 용인  
끝없는 경계, 학교재갤러리, 서울  
사악한 자에겐 휴식이 없다, 갤러리 페로탱, 홍콩  
2011 특별한 지구, 유즈 파운데이션, 자카르타  
2010 손목의 피로, 갤러리 페로탱, 파리  
2009 예측, 아라리오 갤러리, 서울; 천안  
2008 갤러리 페로탱, 마이애미, 미국  
나갈 길은 없다, 하지만 항상 뚫고 나갈 길은 있다, 갤러리 노흐덴 지동, 룩셈부르크  
2007 진보는 더 이상 보장되지 않는다, 미하엘 안센 갤러리, 베를린  
2006 우연한 관광객, 갤러리 페로탱, 파리  
하이 콜레스테롤 모먼트, 자크 퓨어 갤러리, 뉴욕  
2004 당신이 원하는 것보단 많이, 필요로 하는 것보단 적게, LFL 갤러리, 뉴욕  
소셜 디스토션, 갤러리 페로탱, 파리

## 단체전

- 2015 위험과 기묘함이 가득 찬: 보편주의로서 회화, 로빈 펙햄 기획, M 우즈, 베이징  
2012 비난의 소리, 블라디미르 레스틀 로이펠드 기획, 소더비 S2 갤러리, 뉴욕  
에너르기, 대전시립미술관, 대전  
메이킹 웨이브스, 사치갤러리, 런던  
2011 글로벌 뉴 아트, 솜포미술관, 도쿄  
컬렉터의 스테이지, 아시아 현대 미술 개인소장품, 싱가포르 미술관, 싱가포르  
극 현대 미술전, 라셀 예술대학, 싱가포르  
2010 희망, 피노 재단, 디나르, 프랑스  
진화 속의 삶, 부산 비엔날레, 다카시 아즈마야 기획, 부산시립미술관, 부산  
NYC 콜렉츠, 뉴버거 미술관, 뉴욕

- 2009 비스틴, 갤러리 노흐덴 지동, 룩셈부르크
- 2008 겐팅 아웃 아워 드림스, 오테로 프라스트, 로스앤젤레스, 미국  
지킬 섬, 맥스 헨리 기획, 오너 프레이저 갤러리, 로스앤젤레스, 미국  
새로운 정통 : 차세대 유태인 예술가, 스퍼투스 인스티튜트 오브 주이시 스테디스,  
시카고, 미국
- 2007 집 안의 무질서, 반하런츠 아트컬렉션, 브뤼셀  
살롱 누보, 제스퍼 샤프 기획, 앵خم 앵겔혼 갤러리, 빈  
다다익선 - 맥시멀리스트 회화, 뮤지엄 오브 파인 아트,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텔러해시,  
미국
- 2006 회화의 승리, 사치 갤러리, 런던  
피의 자오선, 데이비드 헌트 기획, 미하엘 얀센 갤러리, 베를린  
비비디-바비디-부!, 쿤스트페어라인 빌레펠트, 빌레펠트, 독일  
만하임 전시회, 만하임, 독일; 서클윈스터, 룩셈부르크  
이동의 알레고리, 웨스트포트 아트센터, 웨스트포트, 미국
- 2004 표면장력, 마농 슬롬 기획, 첼시미술관, 뉴욕
- 2003 팬톤, 데이비드 헌트 기획, 매시모 오디엘로 갤러리, 뉴욕

## 작품소장

솔로몬 R. 구겐하임, 뉴욕  
첼시 미술관, 뉴욕  
필라델피아 미술관, 필라델피아, 미국  
유즈 파운데이션, 자카르타  
사치 갤러리, 런던  
O 뮤지엄, 방콕  
타쿠치 컬렉션, 도쿄  
반하런츠 아트컬렉션, 브뤼셀

## 5. 작가노트

노 디렉션 홈\* No Direction Home

\* 밥 딜런의 유명한 노래 "구르는 돌맹이처럼 Like a rollin' stone" 에 등장하는 가사, 혹은 딜런의 유명한 다큐멘터리 영화 제목

진 마이어슨  
/ 번역 안대웅

1.

학교재에서 두 번째 개인전을 제안받았을 때, 뭔가 근사한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림 그리기를 자의적으로 멈춘 지 18개월째였으며, 전시와 아트페어, 프로젝트를 위한 끊임없는 작품 제작으로 소진된 상태였다. 발견과 놀라움의 감각이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벗겨져 나갔고, 탈진과 일상 노동만이 끊임없이 반복되며 한계에 부딪히고 말았다. 설상가상으로 아시아에 남아야 할지, 아니면 뉴욕이라는 영점, 말하자면 나의 예술적 기원설화로 다시 돌아가야 할지, 그 당시엔 명확하게 보이지 않았다.

내가 일종의 "초입방체적\* 구렁텅이", 그러니까 고유의 무상함과 빈혈 문화로 잘 알려진, 도시에 매달린 차원의 간이역에 사로잡혔다고 이야기할 지도 모르겠다. 길을 잃었고 예술적으로 파산했으며 문화적으로는 향수병을 앓았다. 스튜디오 문을 닫고 스스로를 유평하며, 단순한 고독이 아니라 거의 전적인 분리로 빠르게 나아갔다. 하고자 했던 것은 딸을 보살피는 일이 전부였다고 할 수 있다.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보고 싶지도, 듣고 싶지도, 느끼고 싶지도 않았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것도 그리지 않았다. 아무것도.

\* 수학적으로 4차원을 표현한 도형

2.

나는 다양한 형식 요소가 스스로 자연스레 발전하기까지, 초반에 영감을 주는 등대가 될 몇몇 핵심 회화, 또는 "트랙"으로부터 시작하며, 음악가가 음반을 구성하듯 전시를 구상하기 시작했다. 대다수 화가가 수궁하듯 회화는 미세한 차이를 반복해서 만들어 나가는 고독의 기예다. 그래서 관객과 활동적으로 연결하는 능력을 결여한 회화가 매체로서 가진 유일한 장점이라 하면, 관객이 전지적으로 예상하며 바라보는 시각과, 그 결과로 생긴 사물의 특이성이 관객을 다시 응시하는 것 사이가 공유하는 문턱 순간 threshold moment\*을 안무하는 독특한 능력일 것이다.

그럼에도 관객은 준비 의식 일체를 목격하지 못한다. 물감과 붓을 캔버스에 빠르고 폭력적으로 밀치고, 명사수의 조심스러운 손길과 통제된 호흡으로 붓질을 신중하고도 부드럽게 행하는 것 사이에서 망설임이 느린 속도로 연주한 스타카토 마냥 일어난다. 조용히 오랫동안 지속하는 간주곡, 보고 생각하는 것 사이에서 존재가 불안을 느끼는 짧고도 우발적인 순간이야말로 회화를 시작하고 제작하고 끝내기 위해 필수적이다. 만약 직관이 일생 동안 느끼고 경험해온 것을 번뜩 지각하는 것이라면, 예술적 표현 그 자체는 특별한 사건을 물리적으로 표명한다. 그런 지식을 풀어놓는다. 그러나 아무리 준비라는 이름으로 미학적 스트레칭과 심리적 캘리스데닉스\*\*를 감내한다 하더라도, 텅빈 캔버스의 가능성과 마주할 때 나 자신에게 가하는 압력은 가히 묘사해 내지 못한다.

\* 경계점

\*\*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 펴기 등의 맨몸 운동

하지만 총성이 울리기 전에 그 선상에 발을 담그고 있다면, 이제 느낌이 올 차례다. 정신을 차려 보면 잠자리의 눈을 한 채로 할 수 있는 한 빠르게 거리를 질주하고 있다. 손안의 것은 멈춤-움직

임 메커니즘이다. 누군가가 내 엄지를 누른다면 시간을 멈출 수도 있다. 나는 지금 모든 것을 뒤로하며 내달리고 있다. 폐는 최적으로 움직인다. 욕을 지껄이며 불을 내뿜는다.

내가 예측하고 체화한 도플러 효과는 어디에서나 있는 것으로, 극도로 흥분에 차 히스테리적으로 깔깔대며 누군가를 퍼뜩 지나칠 때 홀연히 깨닫게 되는 것이다. 모든 것이 말초적으로 흐릿하며 소실점이 없다. 나는 항력계수를 밀치고 나가는 이런 움직임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편안히 흥얼거림으로 시작했던 것은 현재 모두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도구, 컴퍼스, 좌표일까? 어떤 것도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몇 번이고 버튼을 재설정하고 눌러봐도 다이얼이 돌며 건축학적 사전천명 death-rattle\*이 감겨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웃음기가 사라진다. 남은 것은 히스테리밖에 없다. 나는 기어코 절대적인 추상 abstract에 도달한 듯했다.

\* 임종이 임박한 자가 내는 소리

3.

나는 대다수 예술가가 회화를 잔여적 사건으로 본다고 확신한다. 사실을 적재한, 정보로 적셔진, 개인적으로 최적화된 절차의 결과물로서 말이다. 유사하게 나는 디지털 스케치로 시작한다. 여기에는 수행적으로 스캔하며 왜곡시킨 다양한 레이어도 포함되는데, 몹시 다양한 삶의 순간의 총체로 채워진 각 순차적 단계는 압축되고 납작해지고 캘린더에서 잘려져 나와, (마침내!) 그림의 평면을 가로질러 드럼처럼 팽팽하게 당겨진다.

나는 두 회화로부터 시작했다. <널 먹기 위해 입을 벌린다 I open my mouth to eat u>(2015)와 <스테이지다이브 Stagedive>(2015)다. 첫 번째는 다음 작업을 위한 헤드라이너 headliner\*로 시작해 본 것이다. 나는 <널 먹기 위해 입을 벌린다>를 정확히 1년 전 홍콩 침사추이에서 벌린 조그만 스튜디오에서 완성했다. <스테이지다이브>는 이후 서울 문래동에 마련된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갤러리의 훌륭한 지원으로) 제작됐다.

\* 신문 헤드라인을 쓰는 기자

건축적으로 학교재 갤러리 공간은 독특하다. 거칠게 60%가 한옥이며 40%는 모더니즘 화이트 큐브다. 전시는 갤러리 뒤쪽 슬쩍 침몰된, 넓은 모더니즘 영역에서부터 떠올려 보았다. 한옥의 전통적 공간을 통과해 내려갔을 때 시야에 들어오는 넓고도 청명한 뒤쪽 방이다. 말하자면 나는 이 전시의 제목으로 명명될 "돌아갈 집 없음 No Direction Home"을, 반직관적으로 전시의 마지막에서부터 시각화하기 시작했다.

몹시 노력해 봤지만 나는 전시를 하나로 통합된 주제나 컨셉, 스타일로 만들 수 있었던 적이 한번도 없다. 부분적인 이유는 전에 언급했다시피, 회화 각각의 고유한 기술적 복잡성이 스튜디오에서 보내는 시간을 오래 요구하기 때문이다. 대개는 나 자신의 불안정하고 지엽적인 본성이, 밀도 있고 중요한 내러티브가 자연스럽게 표층으로 흘러넘치는 것을 대체하거나 방해한다. 그 대신 나는, 스튜디오에서 서성이며 매시간 항해하면서, 비틀고 제련하며 (혹은 때에 따라 자르고 태우며),

이따금씩 이런 종잡기 힘든 구성 원리를 발견하곤 한다. 그것은 태초의 폐허와 파편에 파묻혀 있던 다음번 회화로 곧바로 이행할 수 있게 해준다. 하나의 붓질은 다른 하나를 이끈다.

4.

전시를 위해 그리고 있는 마지막 회화는 감히 완성으로 치닫는 가운데, 여전히 가능성으로 축축이 젖어 잔잔하면서도 흥포한 감각으로 명멸하며 지금 나를 응시하고 있다. 분명하고도 엄중하게, 아직 끝나지 않은 낮은 응얼거림으로 해방되길 간청한다. 이렇게 마지막 썩기 돌을 제자리에 놓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런 마술적 공감으로 인해 기존의 운영체제 operating system는 차디찬 창고로 밀려나서, 새로움의 연한 살갓을 까발리기 위해 가차 없이 버려진다. 이것은 그림-평면이 버글거리면서 만들어 내는 길들이기 힘든 다양한 울울을 엮어낼 뿐만 아니라, 더욱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 최후의 붓질 몇 개는 단언컨대 회화의 분위기를 영원히 결정한다. 음조 tone와 주파수 frequency로, 포괄적인 기류, 회화에 영속적으로 달라붙어 버리는 자욱한 안개로 신호를 보내면서 말이다.

관성의 법칙에 따르면 정지해 있는 사물은 계속해서 정지해 있다. 하지만 움직이는 사물은 영구히 움직인다. 동요 없이 일정한 속도로 앞으로 질주한다. 항력이 없는 한.

그런 한, 그런 한...

진 마이어슨

2016년 3월